

GIST, 대학원생 해외파견연구 전폭 지원한다

- 파견준비금에 더하여 생활지원비 최대 9개월 지원...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
-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을 돕는 한편 대학의 글로벌 R&D 역량 강화 목적



▲ GIST 캠퍼스 전경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**대학원생의 해외파견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.**

‘GIST Graduate International Research Experience Fellowship(이하 GIST-IREF)’제도는 **대학원생들이 세계 유수의 대학 및 연구소에 상주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파견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R&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**

‘GIST-IREF’의 지원 자격은 **GIST 대학원과정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이며, 연구 분야에 맞는 해외 연구기관을 학생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.**

‘GIST-IREF’는 파견 지역에 따라 **△파견준비금 최대 400만 원과 함께 △생활지원비 월 300만 원이 장학금으로 지원된다.** 미국·유럽 지역의 연구기관에 파견되어 **9개월 간 연구를 하는 학생의 경우 총 3,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는 것이다.** 장학금 수혜 학생에게는 해외파견 종료 후 공동연구 논문 등 연구실적 제출 의무만 부과된다.

김상돈 교학부총장은 **“‘GIST-IREF’가 학생 개인의 발전을 돕고, GIST의 글로벌 연구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”**며 **“우리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하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·장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”**이라고 밝혔다.

GIST는 학생 1인당 최대 9개월까지 'GIST-IREF' 장학금을 지원하고, 필요에 따라 단기파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. **'GIST-IREF'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다.**

한편 작년 11월 국내 한 언론사가 발표한 대학평가에 따르면 GIST는 국내 대학 중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에서 '교육 여건이 가장 우수한 대학'(△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1위 △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1위)으로 선정된 바 있다.